

제5절 광양 고을 이름 변천과정과 그 이름의 의미

1. 광양고을 최초이름 『마로현(馬老縣)』과 그 의미

광양고을은 최근 전문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구석기시대(BC 13,000~BC 9,000년경)부터 사람이 살았으며 구석기시대 - 신석기시대 - 청동기시대 - 철기시대 - 현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사 연대순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역사연대를 고루 갖춘 인간의 발자취가 뿌리깊은 고장이다.³⁰⁾

광양고을 이름이 최초로 문헌에 기록된 것은 삼국의 역사를 기전체(紀傳體)로 정리한 삼국사기에 백제시대 마로현(馬老縣)이라 하였는데³¹⁾ 우리 고장이 백제의 세력권에 들어온 시기는 백제 근초고왕 24~25년(서기 369~370)경으로 추정되며 그 이전에는 삼한에 속하였다.³²⁾

광양읍에 위치한 마로산성(馬老山城) 발굴조사 결과 “마로관(馬老官)”이란 명문기와가 출토되고 백제시대 유물이 다량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유물들도 많이 발굴되어 백제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 까지 이곳 마로산성이 광양의 행정 소재지(治所)였음을 알려준다.³³⁾

마로현(馬老縣), 마로의 의미를 일부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한문이 우리생활에 일상화되기 전에는 「마로」를 순수 우리말인 「모-루」「마어-루」라 하였는데 그 이후 「마르」로 변하였고, 이 「마르」가 한문으로 음차(音借: 본래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한문의 비슷한 발음을 빌어서 글자를 씀)되어 마로(馬老)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마르」는 현재 순수 우리말인 「마루」와 발음이 비슷하므로 마르→마루=꼭대기. 끝→우두머리. 으뜸의 뜻이므로 마로현의 의미는 당시 주변 고을에 비하여 「 으뜸되는 고을」의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그런데 옛말의 변천과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추론적 근거없이 변화되고 더구나 한문으로 음차(音借)되는 과정을 거치면 그 본래의 뜻과는 관련없는 말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측면에서 「마로(馬老)」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옛날에는 마을·산·하천 등의 여러 지명은 나라(국가·관)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마을 주민들이 자연(山川)과 어울려 살면서 그 모습, 위치, 기후, 특징, 산물 등에 착안하여 대부분 이름 지어 살았거나 마을 주민들이 풍수지리와 연관되어 지은 이름도 많았다.

30) 『문화유적 분포지도』, 순천대학교 박물관, 2000. 2.

31) 『삼국사기』제37권, 1145.

32) 『일본서기』신공기 49년 50년조.

33) 『마로산성 2차 발굴조사 약보』, 순천대학교 박물관, 2003.

그 이후 한문이 들어와 순수 우리말인 이러한 이름들을 한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이름들로 변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옥곡면(玉谷面)에 옛날 옥곡원(院 : 공무상 여인숙)이 있었고, 인근지역에 옥곡원을 지키는 원(院)지기가 살았다 하여 이 마을을 「원지기」 마을이라 불렀는데, 이를 한문으로 음차(音借)하여 院지기 → 원적(元迪)이라고 마을 이름을 고쳐 버려 본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지명이 되어 버렸고, 광양읍 초남(草南) 마을은 본래 「새냘미」로 불렀는데 그 의미는 새냘미의 「새」는 → 쇠(金)로, 새냘미의 「냘미」는→나움(産)의 의미로 그 뜻이 합하여 「새냘미」→「금이 나는 마을」이란 뜻인데 새→풀(草), 냘미-남(南)으로 바꾸어 초남(草南)이 되어 본래 의미와는 거리가 먼 이름으로 고착화되어 버렸다.

마로현(馬老縣)의 마로(馬老)에 대한 의미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검토해 보면 첫째, 「마르」가 발음이 비슷한 「마르→마루=꼭대기. 으뜸」으로 해석(뜻풀이)되는데는 무리(無理)가 있다. 즉 똑같은 발음을 갖는 옛말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 : 옛말의 「새」 → 쇠(金), 풀(草), 새(鳥)

그러므로 마르=마루 하는 식은 하나의 가정(假定)에 불과할 따름이다.

둘째, 「마르」가 한문으로 음차되어 마로(馬老)가 되었는데 「마로」는 삼국사기 등 주요문헌에 기록되어 온 정식 명칭이지만 「院지기→元迪」하는 식으로 원뜻과는 아무 관련 없이 발음이 비슷한 한문으로 쓴 글자이기 때문에 「마르」와 「마로」는 의미상 서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마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왜정시대인 1933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の聚落』이란 책자에 「馬老」의 의미가 나름 대로 밝혀져 있다. 그 내용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馬老」의 본래 의미는 백제 때 그 당시 주변 고을 이름인 마서량(馬西良) 및 마사량(馬斯良)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으며 그 뜻은 「cleared ground」 즉 「밝은땅」이란 의미를 지녔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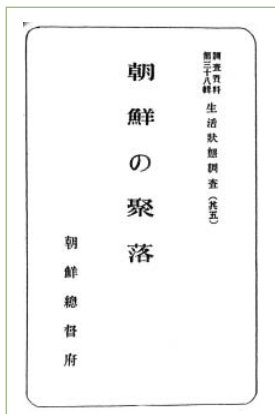


사진 2-28 : 「朝鮮の聚落」 책자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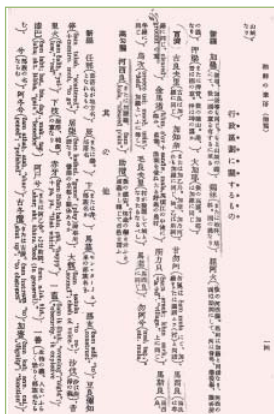


사진 2-29 : 「朝鮮の聚落」馬老의 의미

마서량은 전북 옥구군에 있었던 백제 때 고을 이름이며(현재는 군산시에 통합됨), 마사량은 현재 전남 장흥군의 백제 때 고을 이름이다. 왜정시대 일본인 학자에 의해 편찬된 책이지만 서문에 그 당시 전해오는 각종 관련 문헌을 근거로 저술한 것이라 하였으며 또한 객관적으로 기술한 내용이어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첫째, 당시 다른 고을들과 비교하여 객관성 있게 검토되었으며 둘째, 비교되는 다른 고을들과 지형적 여건과 기후가 비슷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셋째는 「마로」의 의미가, 다음 이름인 희양(晞陽) 및 현재 광양(光陽)의 의미와 서로 상통하는 「밝음」의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다. 즉 전북 옥구군(현재는 군산시에 편입됨)과 전남 장흥군의 연평균 기온이 12.8℃로서 광양시의 연평균 기온인 13.7℃와 비슷하며 장흥군은 남해안(금강), 군산시는 서해안(만경강)에 인접하고 있는데 광양시는 광양만(섬진강)을 끼고 있어 이 지역 3개 고을 모두 바다 또는 해안에 접하고 있어, 따뜻하고 온화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로현(馬老縣)」은 「밝은 땅」·「밝은 고을」이란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 마로현 다음 이름인 희양현(晞陽縣)과 그 의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잠깐 동안 중국 당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신라가 당의 세력을 몰아낸 이후 서기 676년경에 광양고을은 신라 땅에 속하게 된다. 이어서 통일신라는 서기 687년에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나누었는데 마로현은 9주중에 무진주(武珍州 : 현재 광주광역시)의 삽평군(插平郡 : 현 순천시)에 속하게 되며 통일신라 경덕왕 16년, 서기 757년에는 전국의 군·현의 이름을 대부분 바꾸는데 광양은 마로현(馬老縣)에서 희양현(晞陽縣)으로 개칭된다.³⁴⁾

개칭된 희양(晞陽)의 고을 명칭의 의미를 살피기에 앞서 희양현의 「희」자를 「晞」 또는 「曦」의 두 가지로 혼용하여 쓰는 사례가 있어 「희」글자에 대하여 우선 정립할 필요가 있다.

희양현의 「晞」로 기록된 사료는 『삼국사기』(1145년. 김부식 저), 『고려사지리지』(1451년. 정인지·정창손 등 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정인지 등 저), 『삼국사절요』(1476년. 노사신·서거정 등), 『신증동국여지승

34) 『삼국사기』제37권. 1145.

람』(1530년. 이행·노사신·양성지 등 저) 등 국가 주요문헌에 기록되어 전하며, 특히 우리 고장에서 발간된 가장 오래된 향토지인 『광양현읍지』(光陽縣邑誌, 1798년. 당시 현감의 서문이 기록됨)에서도 회양현(睢陽縣)으로 기록되어 전한다.

한편 회양현의 「曦」로 기록된 사료는 『광양읍지』(光陽邑誌, 1925년. 광양향교), 『내고장 전통가꾸기』(1981년. 내고장 전통가꾸기 광양군편찬위원회), 『광양군지』(光陽郡誌, 1983. 광양군지편찬위원회) 및 광양시 일부 홍보책자 등으로 편찬 연대가 오래되지 않으며 고을 자체에서 발간된 책자들이다. 1925년 광양읍지 편찬 당시에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작고하시어 「曦」로 변경된 사유를 알 수는 없으나 공시적(公示的)·공인적(公認的) 차원에서 판단하면 睢陽으로 쓰여 옳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晞」·「曦」 각각 한자의 훈(訓: 뜻풀이)을 참고하여 다시 살펴보면, 「晞」는 ① 마를 희·말릴 희; 건조함·건조시킴 ② 밝을 희; 날이 밝음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曦」는 ① 햇빛 희·일광 ② 운행이 바른 태양의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晞」는 ②의 뜻 즉「밝음」을 나타내는 「馬老」와 뜻이 통하며, 「曦」는 ①의 뜻인 햇빛희·일광과 의미가 비슷한 「光」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曦」는 현재 우리고장 명칭인 光陽의 「光」의 의미이므로 이와 연관되어 「曦」로 쓰여 온 시대적 연대순으로 보아 모순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 주요문헌에 근거하여 「회양」은 「睢陽」으로 쓰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睢陽縣」은 「馬老縣」과 동일한 뜻을 가진 「밝고 따뜻한 고을」이란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3. 「광양(光陽)」 고을 이름과 그 의미

서기 936년, 후백제 멸망을 마지막으로 고려가 후삼국을 완전 통일하게 됨과 동시에 광양땅이 고려에 속하게 된다.³⁵⁾

고려 건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정국이 어느정도 안정되자 서기 940년(고려 태조 23년)에 대대적으로 지방조직을 개편하게 되는데 이때 광양땅은 고을의 명칭을 회양현(睢陽縣)에서 광양현(光陽縣)으로 개칭하고 승평군(昇平郡: 현 순천시)의 현령(縣令)으로 된다.³⁶⁾

35) 『고려사』 제57권. 1451.

36) 위의 책.

광양(光陽)의 「光」은 「햇빛」·「일광」의 뜻을 지녔으므로 「光陽」의 의미는 「따뜻한 햇빛 고을」이란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 「晞」는 「밝음」의 뜻을 지녔으므로 넓은 의미로는 「光」·「晞」 모두가 「밝음」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으며, 한편 「陽」은 남쪽에 위치한 고을이면서 남수북산(南水北山 : 남-광양만, 북-백운산)의 형국을 한 고을에 「陽」자를 명명(命名)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의 관행을 따른 것으로 경기도 고양(高陽), 충청북도 단양(丹陽), 경상도 영양(英陽) 등이 있다. 그러므로 광양현(光陽縣)의 의미는 「따뜻한 햇빛 고을」이란 뜻이며 넓은 의미로는 「밝은 고을」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光陽」이름 변천 과정과 그 의미를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光陽」고을 최초 이름인 마로현(馬老縣)은 「밝은 고을」이란 의미를 지녔고, 마로현(馬老縣) 다음 이름인 희양현(晞陽縣)도 「밝은 고을」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현재의 광양현(光陽縣)은 「따뜻한 햇빛 고을」이란 뜻을 지녔는데 넓은 의미로는 「밝은 고을」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馬老 - 晞陽 - 光陽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이름의 맥인 「밝음」이란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음을 살필 수 있으며, 우리 고장이 백제 땅이 된 시기를 서기 370년경으로 추정한다면 광양 고을 이름을 상징하는 「밝음」이란 의미가 1,600여 년간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또한 「光陽」이라 불러오는 이름도 서기 940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므로 1,060여 년간이 넘게 불러어 오는 뿌리깊은 이름을 갖고 있는 고장이라고 하겠다.

제6절 라말의 선승도선과 광양

1. 머리말

도선(道詵)은 신라하대(新羅下代)에 새로 도입되어 당시의 불교계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고 있던 선종(禪宗)계통의 승려이다. 그는 선문구산과 가운데의 하나인 동리산(전남 곡성군 소재)과의 개조 혜철의 가르침을 받

37) 崔柄憲(최병헌), “道詵(도선)의 生涯(생애)와 羅末麗初(라말여초)의 風水地理說(풍수지리설)”, 『韓國史研究』7, 1975, p.104 이 글은 위의 논문에서 크게 의존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